1. **화제 선정 및 구체화 단계**

화제 : 내가 미래에 하고 싶은 것.

구체화 1: 나의 꿈인 풀 스택 개발자(full stack developer)

구체화 2: 풀 스택 개발자(full stack developer)가 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것 2가지.

1. **개요 작성 단계**

**도입 :**

1. 나의 꿈 공유
2. 꿈에 대한 설명
3. 앞으로 말할 이야기 소개

**전개 :**

‘트위터 앱’

1. 트위터 앱
2. 트위터 앱의 특징
3. 트위터 앱을 하며 느낀점

‘신문 앱’

1. 신문 앱을 만든 배경
2. 신문 앱의 특징
3. 신문 앱을 하며 느낀점

**종결 :**

1. 활동을 하며 전체적으로 느낀점
2. 청자에게 하고싶은 말
3. **원고 작성 단계**

안녕하십니까 저는 컴퓨터학부 21학번 이현서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제 꿈을 여러분들에게 짧게나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미래에 이루고 싶은 꿈이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옆의 누군가는 멋진 개발자, 다른 누군가는 이보다 더 멋진 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처럼 멋진 꿈을 꾸며 지금은 풀 스택 개발자 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풀 스택 개발자란 웹을 디자인하는 프론트와 데이터베이스등을 다루는 백엔드개발을 동시에 하는 개발자를 뜻합니다. 이러한 풀 스택 개발자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소개시켜 드릴 것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것일 겁니다. 바로 ‘트위터’입니다. 모방을 시작으로 창조가 시작된다고 하죠.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를 나만의 방식대로 만들어 자신의 실력을 한층 강화하는 것을 클론 코딩이라고 합니다. 저는 트위터를 클론 코딩 하기 위해, 백엔드를 구글의 파이어베이스(Firebase)를 사용하였으며, 프론트를 위해 React.Js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들과 관련된 문서들을 바탕으로 주체적으로 학습하여 트위터를 완성하니 이에 대한 쾌감은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두번째로는 제 편리를 위해 만든 앱입니다. 여러분은 신문을 읽으시나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처음으로 보는 것이 아침 뉴스 입니다. 하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피곤한 아침에 좋아하는 뉴스 토픽만을 찾아서 보기란 너무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하는 토픽만을 정해서 인기 순으로 정렬 한 다음에 볼 수 있는 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는 백엔드를 위해 타입스크립트(Type Script)를 사용하였으며, 디자인을 위해 React.Js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상 생활 안의 불편함을 주체적으로 선정하고 해결하는 활동을 하며 내가 가진 꿈의 실용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한 활동 등을 주체적으로 선정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꿈에 대한 흥미를 더욱 높일 수 있었으며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고 다음에는 모바일 앱 프로그래밍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꿈 혹은 배워보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저처럼 꿈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나쯤은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